**닥키나위방가경(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M142)**

(Dakkhiṇāvibhaṇgasuttaṃ- Classification of Offerings-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 맛지마니까야 M142, 전재성박사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싸끼야 국의 까삘라밧투에 있는 니그로다 승원에 계셨다.

2. 그 때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한 벌의 새 법복을 가지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 쪽으로 물러 앉았다.

3. 한 쪽으로 물러 앉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고따미]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법복은 특별히 세존을 위하여 제가 손수 짜고 손수 기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이것을 영납하시고, 애민히 여겨 받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세존께서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고따미여, 승단에 이것을 보시하십시오. 그대가 승단에 보시할 때에 곧 나와 승단을 공양하는 것이 됩니다."

4.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다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고따미]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법복은 특별히 세존을 위하여 제가 손수 짜고 손수 기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이것을 영납하시고, 애민히 여겨 받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세존께서는 다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고따미여, 승단에 이것을 보시하십시오. 그대가 승단에 보시할 때에 곧 나와 승단을 공양하는 것이 됩니다."

5. 세 번째에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고따미]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법복은 특별히 세존을 위하여 제가 손수 짜고 손수 기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이것을 영납하시고, 애민히 여겨 받아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존자 아난다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6. [아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 지은 이 한 벌의 새 법복을 받아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께 이모이며, 양모이며, 양육자이며, 수유자로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부처님에게 귀의하였고 그 가르침에 귀의하였고 참모임에 귀의하였습니다.

2)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있는 것을 삼갑니다.

3)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부처님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가르침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참모임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거룩한 이들이 사랑하는 계행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었습니다.

4) 세존이시여, 세존을 인연으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께서는 괴로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7. [세존] "아난다여, 그렇다. 아난다여, 그렇다.

1)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인연으로 부처님에게 귀의하였고 가르침에 귀의하였고 참모임에 귀의하였다면,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 대하여 인사하거나 일어서 맞이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친절을 보이거나 의복, 음식, 깔개, 필수약품을 보시하여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한다.

2)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인연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취기있는 것을 삼가했다면,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 대하여 인사하거나 일어서 맞이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친절을 보이거나 의복, 음식, 깔개, 필수약품을 보시하여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한다.

3)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인연으로 부처님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가르침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참모임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고, 거룩한 이들이 사랑하는 계행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추었다면,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 대하여 인사하거나 일어서 맞이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친절을 보이거나 의복, 음식, 깔개, 필수약품을 보시하여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한다.

4)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인연으로 괴로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 대하여 인사하거나 일어서 맞이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친절을 보이거나 의복, 음식, 깔개, 필수약품을 보시하여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한다.

8. 아난다여,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에는 열 네 가지가 있다.

1)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 보시한다면, 이것이 첫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2) 연기법을 깨달은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두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3) 여래의 제자인 거룩한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세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4) 거룩한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네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5) 돌아오지 않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다섯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6)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여섯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7) 한 번 돌아오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일곱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8) 한 번 돌아오는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여덟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9) 흐름에 든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아홉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10) 흐름에 든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열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11)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밖의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열한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12) 도덕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열두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13) 부도덕한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열세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14) 축생에게 보시한다면, 이것이 열네 번째의 개인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9. 아난다여, 축생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백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부도덕한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천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도덕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십만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 밖의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천억 배의 갚음이 기대된다. 흐름에 든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그 보시는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갚음이 기대된다. 하물며 흐름에 든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한번 돌아오는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한번 돌아오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돌아오지 않는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거룩한 경지를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여래의 제자인 거룩한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연기법을 깨달은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물며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에게 보시한다면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10. 아난다여,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1)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수행승과 수행녀의 참모임에 보시한다. 이것이 첫 번째의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2) 여래가 최후의 열반에 든 이후에 수행승과 수행녀의 참모임에 보시한다. 이것이 두 번째의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3) 수행승의 참모임에 보시한다. 이것이 세 번째의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4) 수행녀의 참모임에 보시한다. 이것이 네 번째의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5) "일정한 수행승들과 수행녀들을 나를 위해 지정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보시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의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6) "일정한 수행승들을 나를 위해 지정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보시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의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7) "일정한 수행녀들을 나를 위해 지정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보시한다. 이것이 일곱 번째의 참모임에 대한 갚음의 보시이다.

11. 아난다여, 미래에 황색의 목을 하고 비도덕적이고 악한 성품을 지닌 가문의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참모임을 위해 그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 보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임에 주어진 보시는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결코 개인에 대한 보시가 참모임에 대한 보시보다 더욱 커다란 과보를 낳지는 못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12. 아난다여, 보시의 청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1) 보시하는 자가 청정하지만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있다.

2)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있다.

3)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 못하지만 보시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있다.

4)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만 보시받는 자도 청정한 보시가 있다.

13. 아난다여,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란 어떠한 것인가? 보시하는 자는 도덕적이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으나 보시 받는 자는 비도덕적이고 나쁜 성품을 갖고 있다면,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 받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이루어진다.

14. 아난다여,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란 어떠한 것인가? 보시하는 자는 비도덕적이고 나쁜 성품을 갖고 있으나 보시 받는 자는 도덕적이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면,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이루어진다.

15. 아난다여,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 못하지만 보시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란 어떠한 것인가? 보시하는 자도 비도덕적이고 나쁜 성품을 갖고 있고 보시 받는 자도 비도덕적이고 나쁜 성품을 갖고 있다면,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 못하지만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이루어진다.

16. 아난다여,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만 보시받는 자도 청정한 보시란 어떠한 것인가? 보시하는 자도 도덕적이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보시 받는 자도 도덕적이고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면,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만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한 보시가 이루어진다.

17. 이처럼 세상에 존경받는 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스승으로서 또 다시 이와 같은 시를 읊으셨다.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하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받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어느 쪽의 덕행도 보시를 청정하게 만들지 못하네.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세간적 보시 가운데 최상이라고 나는 말한다.

(맛지마니까야 142,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

Suttantapiṭake
Majjhimanikāyo
Uparipaṇṇāsako
4.Vibhaṅg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3.4.12
142 Dakkhiṇāvibhaṅga suttaṃ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sakkesu viharati kapilavatthusmiṃ nigrodhārāme. Atha kho mahāpajāpatī gotamī navaṃ dussayugaṃ ādāya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itvā bhagavantaṃ abhivād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ā kho mahāpajāpatī gotamī bhagavantaṃ etadavoca:

Idaṃ me bhante, navaṃ dussayugaṃ bhagavantaṃ uddissa sāmaṃ kantaṃ sāmaṃ vāyitaṃ. Taṃ me bhante, bhagavā patigaṇhātu anukampaṃ upādāyā'ti. Evaṃ vutte bhagavā mahāpajāpatiṃ gotamiṃ etadavoca: saṅge gotamī dehi, saṅghe te dinnaṃ ahaṃ ceva pūjito bhavissāmi saṅgho cā'ti. Dutiyampi kho mahāpajāpatī gotamī bhagavantaṃ etadavoca: idaṃ me bhante, navaṃ dussayugaṃ bhagavantaṃ uddissa sāmaṃ kantaṃ sāmaṃ vāyitaṃ. Taṃ me bhante, bhagavā patigaṇhātu anukampaṃ upādāyā'ti. Dutiyampi kho bhagavā mahāpajāpatiṃ gotamiṃ etadavoca: saṅghe gotamī dehi, saṅghe te dinne ahañceva pūjito bhavissāmi saṅgho cā'ti. Tatiyampi kho mahāpajāpatī gotamī bhagavantaṃ etadavoca: idaṃ me bhante, navaṃ dussayugaṃ bhagavantaṃ uddissa sāmaṃ kantaṃ sāmaṃ vāyitaṃ. Taṃ me bhante, bhagavā patigaṇhātu anukampaṃ upādāyā'ti. Tatiyampi kho bhagavā mahāpajāpatiṃ gotamiṃ etadavoca: saṅghe gotamī dehi saṅghe te dinne ahañceva pūjito bhavissāmi saṅgho cā'ti.

Evaṃ vutte āyasmā ānando bhagavantaṃ etadavoca: 'patigaṇhātu bhante, bhagavā mahāpajāpatiyā gotamiyā navaṃ dussayugaṃ, bahūpakārā1 bhante, mahāpajāpatī gotamī bhagavato mātucchā āpādikā posikā khīrassa dāyikā, bhagavantaṃ janettiyā kālakatāya2 thaññaṃ pāyesi. Bhagavāpi bhante, bahūpakāro mahāpajāpatiyā gotamiyā. Bhagavantaṃ bhante, āgamma mahāpajāpatī gotamī buddhaṃ saraṇaṃ gatā, dhammaṃ saraṇaṃ gatā, saṅghaṃ saraṇaṃ gatā. Bhagavantaṃ bhante. Āgamma mahāpajāpatī gotamī pāṇātipātā paṭiviratā, adinnādānā paṭiviratā, kāmesumicchācārā paṭiviratā, musāvādā paṭiviratā,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ā paṭiviratā. Bhagavantaṃ bhante, āgamma mahāpajāpatī gotamī budd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ā, dhamm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ā, saṅg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ā, ariyakantehi [PTS Page 254] [\q 254/] sīlehi samannāgatā. Bhagavantaṃ bhante, āgamma mahāpajāpatī gotamī dukkhe nikkaṅkhā, dukkhasamudaye nikkaṅkhā, dukkhanirodhe nikkaṅkhā,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nikkaṅkhā. Bhagavāpi bhante bahūpakāro mahāpajāpatiyā gotamiyāti.

------------------------

1.Bahukārā-syā.

2.Kālaṅkatāya-majasaṃ,sīmū.

[BJT Page 522] [\x 522/]

Evametaṃ ānanda, evametaṃ ānanda, yaṃ hi ānanda, puggalo puggalaṃ āgamma buddhaṃ saraṇaṃ gato hoti, dhammaṃ saraṇaṃ gato hoti, saṅghaṃ saraṇaṃ gato hoti.Imassānanda, puggalassa iminā puggalena na suppatikāraṃ vadāmi, yadidaṃ abhivādanapaccuṭṭhānaañjalikammasāmīcikammacīvarapiṇḍapātasenāsanagilāna- paccayabhesajjaparikkhārānuppadānena.

Yaṃ hānanda, puggalo puggalaṃ āgamma. Pāṇātipātā paṭivirato hoti, adinnādānā paṭivirato hoti, kāmesu micchācārā paṭivirato hoti, musāvādā paṭivirato hoti,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ā paṭivirato hoti. Imassānanda, puggalassa iminā puggalena na suppatikāraṃ vadāmi. Yadidaṃ abhivādanapaccuṭṭhānaañjalikammasāmīcikammacīvarapiṇḍapātasenāsanagilāna- paccayabhesajjaparikkhārānuppadānena.

Yaṃ hānanda, puggalo puggalaṃ āgamma budd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dhamm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saṅghe aveccappasādena samannāgato hoti, ariyakantehi sīlehi samannāgato hoti. Imassānanda, puggalassa iminā puggalena na suppatikāraṃ vadāmi. Yadidaṃ abhivādanapaccuṭṭhānaañjalikammasāmīcikammacīvarapiṇḍapātasenāsanagilāna- paccayabhesajjaparikkhārānuppadānena.

Yaṃ hānanda, puggalo puggalaṃ āgamma dukkhe nikkaṅkho hoti, dukkhasamudaye nikkaṅkho hoti, dukkhanirodhe nikkaṅkho hoti,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nikkaṅkho hoti. Imassānanda, puggalassa iminā puggalena na suppatikāraṃ vadāmi. Yadidaṃ abhivādanapaccuṭṭhānaañjalikammasāmīcikammacīvarapiṇḍapātasenāsanagilāna- paccayabhesajjaparikkhārānuppadānena.

Cuddasa kho panimānanda,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Katamā cuddasa: tathāgate arahante sammāsambuddhe dānaṃ deti, ayaṃ paṭhamā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Paccekabuddhe1 dānaṃ deti, ayaṃ dutiyā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Tathāgatasāvake arahante dānaṃ deti, ayaṃtatiyā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Arahattaphalasacchikiriyāya paṭipanne dānaṃ deti, ayaṃ catutth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Anāgāmissa dānaṃ deti, ayaṃ pañc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PTS Page 255] [\q 255/] anāgāmiphalasacchakiriyāya paṭipanne dānaṃ deti, ayaṃ chaṭṭhi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Sakadāgāmissa dānaṃ deti, ayaṃ satt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Sakadāgāmiphalasacchakiriyāya paṭipanne dānaṃ deti, ayaṃ aṭṭh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Sotāpanne dānaṃ deti, ayaṃ nav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Sotāpattiphalasacchakiriyāya paṭipanne dānaṃ deti, ayaṃdas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Bāhirake kāmesu vītarāge dānaṃ deti, ayaṃ ekādas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Puthujjanasīlavante dānaṃ deti, ayaṃ dvādas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Puthujjanadussīle dānaṃ deti, ayaṃ teras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 Tiracchānagate dānaṃ deti, ayaṃ cuddasamī pāṭipuggalikā dakkhiṇāti.

-------------------------

1.Paccekasambuddhe-majasaṃ,sīmū.

[BJT Page 524] [\x 524/]

Tatrānanda, tiracchānagate dānaṃ datvā sataguṇā dakkhiṇā pāṭikaṅkhitabbā. Puthujjanadussīle dānaṃ datvā sahassaguṇā dakkhiṇā pāṭikaṅkhitabbā. Puthujjanasīlavante dānaṃ datvā satasahassaguṇā dakkhiṇā pāṭikaṅkhitabbā. Bāhirake kāmesu vītarāge dānaṃ datvā koṭisatasahassaguṇā dakkhiṇā pāṭikaṅkhitabbā. Sotāpattiphalasacchikiriyāya paṭipanne dānaṃ datvā asaṅkheyyā appameyyā dakkhiṇā pāṭikaṅkhitabbā. Ko pana vādo sotāpanne, ko pana vādo sakadāgāmiphalasacchikiriyāya paṭipanne, ko pana vādo sakadāgāmissa, ko pana vādo anāgāmiphalasacchikiriyāya paṭipanne, ko pana vādo anāgāmissa, ko pana vādo arahattaphalasacchikiriyāya paṭipanne, ko pana vādo tathāgatasāvake arahante, ko pana vādo paccekabuddhe, ko pana vādo tathāgate arahante sammāsambuddheti.

Satta kho panimānanada, saṅghagatā dakkhiṇā. Katamā satta: buddhapamukhe ubhato saṅghe dānaṃ deti, ayaṃ paṭhamā saṅghagatā dakkhiṇā. Tathāgate parinibbute ubhato saṅghe dānaṃ deti, ayaṃ dutiyā saṅghagatā dakkhiṇā. Bhikkhusaṅghe dānaṃ deti, ayaṃ tatiyā saṅghagatā dakkhiṇā. Bhikkhunīsaṅghe dānaṃ deti, ayaṃ catutthī saṅghagatā dakkhiṇā. 'Ettakā me bhikkhū ca bhikkhuniyo [PTS Page 256] [\q 256/] ca saṅghato uddissathā'ti dānaṃ deti. Ayaṃ pañcamī saṅghagatā dakkhiṇā. 'Ettakā me bhikkhū saṅghato uddissathā'ti dānaṃ deti, ayaṃ chaṭṭhī saṅghagatā dakkhiṇā. 'Ettikā me bhikkhuniyo saṅghato uddissathā'ti dānaṃ deti. Ayaṃ sattamī saṅghagatā dakkhiṇā.

Bhavissanti kho panānanda, anāgatamaddhānaṃ gotrabhuno kāsāvakaṇṭhā dussīlā pāpadhammā, tesu dussīlesu saṅghaṃ uddissa dānaṃ dassanti. Tadāpahaṃ1 ānanda saṅghagataṃ dakkhiṇaṃ asaṅkheyyaṃ appameyyaṃ vadāmi. Natvevāhaṃ ānanda, kenacī pariyāyena saṅghagatāya dakkhiṇāya pāṭipuggalikaṃ dānaṃ mahapphalataraṃ vadāmi.

Catasso kho imā ānanda, dakkhiṇāvisuddhiyo. Katamā catasso: atthānanda, dakkhiṇā dāyakato visujjhati no paṭiggāhakato. Atthānanda, dakkhiṇā paṭiggāhakato visujjhati. No dāyakato. Atthānanda, dakkhīṇā neva dāyakato visujjhati nopaṭiggāhakato. Atthānanda, dakkhiṇā dāyakato ceva visujjhati paṭiggāhakato ca.

Kathañcānanda, dakkhiṇā dāyakato visujjhati no paṭiggāhakato: idhānanda, dāyako hoti silavā kalyāṇadhammo, paṭiggāhakā honti dussīlā pāpadhammā. Evaṃ kho ānanda, dakkhiṇā dāyakato visujjhati no paṭiggāhakato.

Kathañcānanda, dakkhiṇā paṭiggāhakato visujjhati no dāyakato: idhānanda dāyako hoti dussīlo pāpadhammo, paṭiggāhakā honti sīlavanto2 kalyāṇadhammā. Evaṃ kho ānanda, dakkhiṇā paṭiggāhakato visujjhati no dāyakato.

Kathañcānanda, dakkhiṇā neva dāyakato visujjhati no paṭiggāhakato. Idhānanda, dāyako ca hoti dussīlo pāpadhammo, paṭiggāhakā ca honti dussīlā pāpadhammā. Evaṃ kho ānanda, dakkhiṇā neva dāyakato visujjhati no paṭiggāhakato.

-------------------------

1.Tadāpāhaṃ-majasaṃ. 2.Sīlavantā-sīmū.

[BJT Page 526] [\x 526/]

Kathañcānanda, dakkhiṇā dāyakatoceva visujjhati paṭiggāhakato ca: idhānanda, dāyako ca hoti silavā kalyāṇadhammo, paṭiggāhakā ca honti silavanto kalyāṇadhammā. [PTS Page 257] [\q 257/] evaṃ kho ānanda, dakkhiṇā dāyakato ceva visujjhati paṭiggāhakato ca. Imā kho ānanda, catasso dakkhiṇāvisuddhiyoti.

Idamavoca bhagavā idaṃ vatvā sugato athāparaṃ etadavoca satthā:

Yo sīlavā dussīlesu dadāti dānaṃ

Dhammena laddhā1 supasannacinto,

Abhisaddahaṃ kammaphalaṃ uḷāraṃ

Sā dakkhiṇā dāyakato visujjhati.

Yo dussīlo silavantesu dadāti dānaṃ

Adhammena laddhā1 appasannacītto,

Anabhisaddahaṃ kammaphalaṃ uḷāraṃ

Sā dakkhiṇā paṭiggāhakato visujjhati.

Yo dussīlo dadāti dānaṃ

Adhammena laddhā1 appasannacitto

Anabhisaddahaṃ kammaphalaṃ uḷāraṃ

Na taṃ dānaṃ vipulaphalanti2 brūmi.

Yo sīlavā silavantesu dadāti dānaṃ

Dhammena laddhā1 supasannacitto,

Abhisaddahaṃ kammaphalaṃ uḷāraṃ

Taṃ ve dānaṃ vipulaphalanti2 brūmi.

Yo vītarāgo vītarāgesu dadāti dānaṃ

Dhammena laddhā1 supasannacitto

Abhisaddahaṃ kammaphalaṃ uḷāraṃ

Taṃ ve dānaṃ āmisadānānamagganti3

[PTS Page 258] [\q 258/]

Dakkhiṇāvibhaṅga suttaṃ dvādasamaṃ

Vibhaṅgavaggo catuttho.

Tassa vaggassa uddānaṃ

Bhaddekānanda kaccāna lomasaṅgiyā subho,

Mahākamma saḷāyatana vibhaṅgā,

Uddesa araṇā dhātu saccaṃ

Dakkhiṇā vibhaṅga suttanti4.

-------------------------

1.Laddhaṃ-sīmū. 2.Vipulapphalanti-majasaṃ,

3.Cipulantibrūmi-sīmū.

**MAJJHIMA NIKĀYA III**
***4. 12. Dakkhiṇāvibhaṇgasuttaṃ***(**142) Classification of Offerings**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with the Sakyas in Nigrodha's monastery in Kapilavatthu. Then Mahapajāpati Gotamī taking a set of new clothes approached the Blessed One, worshipped, sat on a side and said. `Venerable sir to make this set of clothes for the Blessed One I spun and wove the cloth. May the Blessed One accept this set of clothes from me, out of compassion,' The Blessed One said. `Gotamī, offer it to the Community. When offered to the Community, it will be offered to me as well,' For the second time Mahapajāpati Gotamī said `Venerable sir to make this set of clothes for the Blessed One, I spun and wove the cloth. May the Blessed One accept this set of clothes from me, out of compassion,' For the second time the Blessed One said. `Gotamī, offer it to the Community. When offered to the Community, it will be offered to me as well,' For the third time Mahapajāpati Gotamī said `Venerable sir to make this set of clothes for the Blessed One I spun and wove the cloth. May the Blessed One accept this set of clothes from me, out of compassion,' For the third time the Blessed One said. `Gotamī, offer it to the Community. When offered to the Community, it will be offered to me as well.”

Hearing this venerable Ānanda said to the Blessed One. `Venerable sir, accept the set of new clothes from Mahapajāpatī Gotami. She was of much help to you, as stepmother, supporter, the one who fed milk, when the Blessed One's mother died. The Blessed One too was of great help to Mahapajāpati Gotamī Come to the Blessed One she took refuge in the Enlightenment, in the Teaching and the Community. Come to the Blessed One she abstained from, taking the life of living things, taking what is not given, misbehaving sexually, telling lies and taking intoxicating drinks. Come to the Blessed One Mahapajāpati Gotami got established in unwavering faith in Enlightenment, in the Teaching and the Community. Come to the Blessed One Mahajāpati Gotamī dispelled doubts about the truth of unpleasantness, its arising, its cessation and the path and method leading to its cessation. Thus the Blessed One was of great help to Mahapajāpati Gotami”

“That is so. Ānanda, if a person come to another person, took refuge in the Enlightenment, the Teaching and the Community. I say the gratitude he has to return to that second person, is not repaid by joining hands in veneration, getting up and offering a seat on arrival, exchanging pleasant conversation and offering robes, morsel food, dwellings and requisites when ill. Ānanda, if a person come to another person, abstained, from taking the life of living things, taking what is not given, misbehaving sexually, telling lies and taking intoxicating drinks. I say the gratitude he has to return to that second person, is not repaid by joining hands in veneration, getting up and offering a seat on arrival, exchanging pleasant conversation and offering robes, morsel food, dwellings and requisites when ill. Ānanda, if a person come to another person, is established in unwavering faith in the Enlightenment, the Teaching and the Community. I say the gratitude he has to return to that second person, is not repaid by joining hands in veneration, getting up and offering a seat on arrival, exchanging pleasant conversation and offering robes, morsel food, dwellings and requisites when ill. Ānanda, if a person meeting another person, became virtuous. I say the gratitude he has to return to that second person, is not repaid by joining hands in veneration, getting up and offering a seat on arrival, exchanging pleasant conversation and offering robes, morsel food, dwellings and requisites when ill. Ānanda, if a person, met another person and dispelled his doubts about the Enlightenment, the Teaching and the Community. I say the gratitude he has to return to that second person, is not repaid by joining hands in veneration, getting up and offering a seat on arrival, exchanging pleasant conversation and offering robes, morsel food, dwellings and requisites when ill.

Ānanda, there are fourteen personal offerings that could be made. An offering made to the Thus Gone One, worthy and rightfully enlightened is the first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the silent Enlightened One, is the second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 worthy disciple, \*1) is the third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 person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worthiness, \*2) is the four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 non-returner, \*3) is the fif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 person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the state of non-returning is the six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one, returning once, \*4) is the seven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 person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the state of returning once is the eigh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one who has entered the stream of the Teaching is the nin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 person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the state of entry into the stream of the Teaching is the ten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one, not greedy and turned away from sensuality is the eleven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n ordinary virtuous person is the twelf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n ordinary not virtuous person is the thirteenth personal offering. An offering made to an animal is the fourteenth personal offering.

Ānanda, of an offering made to an animal the results expected are by hundreds. Of an offering made to an ordinary not virtuous person the results expected are by thousands. Of an offering made to an ordinary virtuous person the results expected are by hundred -thousands Of an offering made to a not greedy one, turned away from sensuality the results expected are by hundred thousand millions. Of an offering made to a person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the state of entry into the stream of the Teaching, the results expected are innumerable and unlimited. What would be the results for offering a gift to a stream entrant of the Teaching? Or one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the state of not returning? Or one who would not return? Or one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worthiness? Or a worthy disciple of the Thus Gone One? Or the silent enlightened One? Or the worthy, rightfully enlightened Thus Gone One?

Ānanda, these seven are the offerings made to the Community. An offering to both bhikkhus and bhikkhunis headed by the Blessed One. This is the first offering made to the Community. After the demise of the Blessed One, an offering made to both bhikkhus and bhikkhunis. This is the second offering made to the Community. An offering made to the bhikkhus. This is the third offering to the Community. An offering made to the bhikkhunis. This is the fourth offering to the Community. An offering made indicating the number of bhikkhus and bhikkhunis. This is the fifth offering to the Community. An offering made indicating the number of bhikkhus. This is the sixth offering to the Community. An offering made indicating the number of bhikkhunis. This is the seventh offering to the Community.

Ānanda, in the future there will be the last bhikkhus in the lineage, not virtuous with evil things, wearing yellow strings round their necks. I say, even the results of an offering made to them on account of the Community is innumerable and limitless. I would not tell you, how an offering made to the Community is more fruitful than a personal offering.

Ānanda, there are four kinds of purity in an offering. An offering is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not the receiver. An offering is pure, on the side of the receiver, not the donor. An offering is neither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nor the receiver. An offering is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as well as the receiver.

Ānanda, how is the offering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and not the receiver? Here the donor is virtuous with good thoughts, the receiver is not virtuous with evil thoughts. Thus the offering is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and not the receiver.

Ānanda, how is the offering pure, on the side of the receiver and not the donor? Here the receiver is virtuous with good thoughts, the donor is not virtuous with evil thoughts. Thus the offering is pure, on the side of the receiver and not the donor.

Ānanda, how is the offering neither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nor the receiver? Here the donor is not virtuous with evil thoughts and the receiver is not virtuous with evil thoughts. Thus the offering is neither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nor the receiver

Ānanda, how is the offering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as well as the receiver? Here the donor is virtuous with good thoughts and the receiver is virtuous with good thoughts. Thus the offering is pure, on the side of the donor as well as the receiver.”

The Blessed One said. `These are the four kinds of purity and further said

A virtuous donor offers to one without virtues, things obtained righteously, with a pleasant mind,

Believing the results of actions. That offering is purified on the side of the donor.

A not virtuous donor offers to the virtuous, things not obtained righteously, with an unpleasant mind,

Disbelieving the results of actions. That offering is purified on the side of the receiver

A not virtuous donor offers to the not virtuous, things not obtained righteously, with an unpleasant mind,

Disbelieving the results of actions. That offering is not purified on either side.

A virtuous donor offers to the virtuous, things obtained righteously, with a pleasant mind,

Believing the results of actions. I say, that offering brings great results

One not greedy offers to those not greedy, things obtained righteously, with a pleasant mind,

Believing the results of actions. I say, that is the highest material offering”

Notes. 1. An offering made to a worthy disciple of the Thus Gone One. `Tathāgatasāvake arahante dānaṃ deti' A worthy disciple of the Thus Gone One has attained the noble state `arahatta' which he aims to attain

2. A person fallen to the method of realizing worthiness. `Arahattaphalasacchikiriyāya paṭipanne,' Before attaining worthiness the bhikkhu has to make much effort to attain worthiness.

3. An offering made to a non-returner. `Anāgāmissa dānaṃ deti,' A non-returner would not be born in the sensual world, to enjoy the five strands of sensual pleasures.

4. An offering made to one returning once. `Sakadāgāmissa dānaṃ deti,' A certain one is born in this world only once, to fulfil a certain aspiration.

[Home](http://awake.kiev.ua/dhamma/index.html)
[Next Sutta](http://awake.kiev.ua/dhamma/tipitaka/2Sutta-Pitaka/2Majjhima-Nikaya/Majjhima3/143-anathapindikovada-e.html)